

가족체계 진단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 기초하여 -

The Development of the Family System Diagnosis Scale and Its Validity

- On the Basis of Minuchin's Structural Family Therapy Theory -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초빙교수 이 미 옥

Daegu Haany University, Dept. of Child Welfare

Invited Professor : Mi-ok Lee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Family System Diagnosis Scale and to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subscales of the questionnaire included scores on seven constructs. In order to define constructs accurately, a careful review of Minuchin's writings, the writings of other family therapists, and relevant articles on family interaction was undertaken. A pool of 150 items was given to eight family counselors along with a description of Minuchin's concepts. The counselors were asked to choose the category each statement fit and to rate the degree of fit using the 3-point scale.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LISREL), six subdimensions of individuation and 55 items of FSDS were identified; enmeshment disengagement(16 items), parent coalition generational coalition(6 items), flexibility rigidity(5 items), spouse conflict resolved unresolved(8 items), mother-child cohesion estrangement(10 items), father-child cohesion estrangement(10 items).

Corresponding Author: Mi-Ok Lee, Depart of Child Welfare, Daegu Hanny University, 290 Yugok-dong, Gyeongsan 712-715, Korea
Tel: 82-53-819-1375 Fax: 82-53-819-1272 E-mail: pspring@yumail.ac.kr

356 adolescents(ages 13~18), 356 fathers, 356 mothers in Seoul, Busan, Dague, Incheon, Dajeun, Ulsan, and Kwangju were completed the Family System Diagnosis Scale(FSDS).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calculated by Cronbach's α Coefficient and the total $\alpha = .94$ and the calculation for each factor was .87, .60, .77, .80 and .79 respectively.

주제어(Key Words): 가족체계(Family System), 신뢰도(Reliability),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I. 서론

가족이란 신체적, 심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체제이다. 각 가족체계는 고유한 특성, 생활 주기, 행동 규범, 가족 고유의 역할 기능, 가족 특유의 의사소통 유형을 가지고 고유한 문제해결 방법을 발달시켜 나가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인간은 가족체계(family system)라는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체계 안에서 개인이 맺어 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심리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적응력을 발달시켜 나간다. 개인의 심리적 정체성과 적응력은 그 개인의 부적응과 관계가 있음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부적응 현상을 일으키는 개인의 정체성과 적응기체의 일부는 가족관계 안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많은 가족학자들은 관계의 중요성에 그 초점을 맞추는 가족체계 이론을 토대로 가족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다(Minuchin, 1974; Kantor & Lehr, 1976; Broderick & Smith, 1979; Olson, Sprenkle & Russell, 1979; Hampson, Hulgus & Beavers, 1991).

가족체계는 가족 성원들로 이루어진 하위체계를 포함하며, 하위체계 역시 가족 전체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 성원의 역기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역기능으로 이해되며, 성원은 단지 "가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부적응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가족체계와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가족체계 이론은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과거 갈등이나 무의식에서 찾지 않고 현재의 가족체계와 관련된 가족 의사소통, 피이드백,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등을 다룸으로써 가족치료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었다(유순임 외, 1995).

체계론적 가족치료 이론 중에서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은 가족구조와 가족 구성원의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며, 특히 하위체계의 개념이 명확하고 단순하며 포괄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가족치료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개념적인 모델 중의 하나가 되었다(Minuchin, S., Rosman, B., & Baker, L., 1978; 송성자, 1996). 특히 대부분의 사고와 행위를 가족 단위로 생각하는 가족 중심적인 한국인의 의식과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사회에서 Minuchin의 이론은 한국 가정의 가족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임상가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Minuchin의 이론이 한국의 문제가족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한인영, 1979; 김효남, 1984; 최순직, 1986; 배은경, 1986; 김미경, 1987; 김효영, 1989; 이지수, 1993; 이준문, 1995).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치료 현장에서 주로 접하는 가족들은 그 정도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대부분 역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자칫 한국가족의 역기능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능적인 가족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국가족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역기능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기능적인 가족체계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 가족치료관점에서 한국가족의 고유한 구조적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Minuchin의 가족치료 이론에 근거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과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가족치료 분야 관련 연구들 중에서 사회조사 연구를 통해 구조적 가족치료 관점에서 한국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들(정수경, 1987; 박영숙, 1987; 손정영, 1990)이 있지만, 이들이 한국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 문항은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새로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 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구조적 가족치료 관점에서 한국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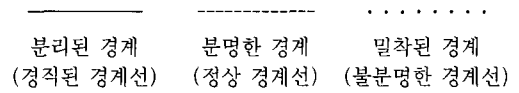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한국가족에의 적용가능성이 부분적으로는 검증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가진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기능적인” 한국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청소년 자녀를 가진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기능적인”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여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의 주요개념

1) 가족 경계(family boundary)

가족 구조내의 경계에 대한 개념은 Minuchin(1974)이 사용한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Minuchin(1974)은 모든 가족들은 밀착된 경계선(enmeshed boundary)과 분리된 경계선(disengaged boundary)을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고 보았다(<그림 1>).



<그림 1> 가족 구조내의 경계선

하위체계들 사이에 이상적인 경계는 분명한 경계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경계는 안정되고 융통성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가 분명한 가족체계에서 가족성원들은 서로 지지적이며, 서로 돌보고 상호간에 자율성을 존중한다. 경계 개념은 지지, 돌보는 것, 자율성, 개별화 등의 사이에서 이상적인 균형상태를 의미한다(D. Becvar & R. Becvar, 1988).

2) 가족 적응(family adaptability)

가족의 적응은 가족구조의 융통성, 변화가능성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적응 과정은 권력구조, 역할기능, 규칙, 상호작용 능력을 가진 가족체계와 관련이 있다. 각 가족성원들, 하위체계와 전체가족은 가족생활 주기와 각 개인의 발달과정에 따르는 성장과 변화에서 야기되는 내적인 압력을 받고, 가족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적응을 요구하는 사회제도와 같은 외부의 압력을 받는다. 가족의 내적·외적 압력에 대한 반응은 다른 가족성원들과의 상호관계에서 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가족체계는 유지되고 성장한다.

3) 가족 위계질서(family hierarchy)

가족 위계질서는 가족체계 내에서 권위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부모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가 부모보다 훨씬 낮은 위치를 차지할 때 가족체계는 가장 잘 기능한다. 이러한 가족에서 부모는 가족이 결정해야 하는 일에 대해 지지하며, 자녀에게 필요한 지도, 양육과 통제를 제공한다. 이렇게 될 경우 세대 차이에 따른 위계질서는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부부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간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가족에서는 부모-자녀 연합이 이루어지며, 자녀가 가족의 규칙을 정하

고 부모의 지시를 무시하여 부모보다 더 큰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4) 가족 하위체계(family subsystems)

가족을 하나의 전체 체계(total system)로 보면 개인은 하나의 하위체계이며 개인은 가족내의 다른 체계들과 함께 가족의 기능을 분배하고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위체계는 세대, 성, 흥미, 기능에 따라 형성된다. 대표적인 하위체계는 부부 하위체계, 부모 하위체계, 형제 하위체계 등이며 가족내에서의 하위체계는 분명한 규칙과 패턴에 의해 좌우된다.

2.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 따른 한국가족의 구조적 특성

1) 가족 경계

Minuchin(1974)은 가족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하위체계간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너무 불분명하여 서로 깊이 밀착되거나, 반대로 너무 경직될 경우에는 가족 내의 역기능적인 교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한국 가족은 가족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부분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야 하며, 가족구성원들의 문제에 다른 가족원들이 관여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가족체계의 경계는 밀착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관계의 경계가 변하기 쉬우며, 부모-자녀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변귀연, 1988; 엄예선, 1990; 손정영, 1990; 유은희, 1991; 송성자, 1996). 그러나 이러한 경계선 문제를 다룰 때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문화가치가 가정분위기의 조화와 화목을 중요시하여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협조와 애정적인 접촉을 강조하며, 관계 중심적인 특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김두현, 1975; 김재은, 1998:). 이것은 현세대가 전세대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전세대에 종속되며 그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핵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가족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서구 문화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는 너무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기가 쉽다.

2) 가족 적응(adaptability)

가족 적응은 가족이 처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황에서 권력구조, 규칙, 역할기능의 변화 가능성 정도를 뜻하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족 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낮을수록 가족구성원은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하다(유순덕, 1987).

한국 가족은 중간정도의 적응수준을 가지고 있다(유순덕, 1987; 변귀연, 1988; 손정영, 1990). 미국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정분위기의 조화와 화목을 중요시 해왔고,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협조와 애정적인 접촉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가족체계에서의 적응 수준이 미국가족의 적응 수준보다 낮을 수 있으나 그것을 지각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각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가족의 적응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3) 가족 위계질서(hierarchy)

Minuchin(1974)은 정상 가족일 경우 부부가 비슷한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부모보다 훨씬 낮은 위치를 차지하므로 세대 차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직까지 부자 중심이며 남아선호사상이 산재해 있는 한국 가족 내에서의 대립 관계는 부부간은 물론 부자간에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아들은 가장의 권위를 계승하여 가계를 주도해 나갈 가장 다음으로 중요한 성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기대는 부자간의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부자 관계에 긴장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가족 내의 최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책임을 지게 된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역할은 자식의 출산과 양육이기 때문에 자연히 어머니와 자녀는 결탁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더 강하게 밀착되는 반면 부자 관계는 소원할 수밖에 없다(이준문, 1995).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 가족구조에서는 부부관계에 긴장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부부관계에 개입시키며, 부자 관계에 긴장이 생길 때도 어머니를 개입시킨다는 점에서 부모-자녀 연합과 삼각관계는 한국 가족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가족구조라고 할 수 있다.

4) 가족 하위체계(subsystems)

구조적 가족체계에는 부부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 형제 하위체계와 같은 중요한 하위체계가 있다.

가족은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가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차적인 인간관계이다(유영주, 1987). 그러나 전통적인 한국의 부부관계는 철저한 불평등관계였다. 그래서 남편은 처를 통제하고 처는 남편에게 공손히 복종하는 것이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가치이념이었다(최재석, 1975). 이러한 부부관계는 1950년대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이르러 남편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남편의 지위가 아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면 현재의 부부관계는 좀더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직 가부장제적 가치를 가진 남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젊은 부부들은 부부관계를 상하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한남제 외, 1994).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전통사회에서 자녀 특히 아들은 가계의 계승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부부관계보다 부자관계가 가족의 중요한 축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이동원 외, 2002)에 의하면 자녀보다 배우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의 중심이 자녀에게서 부부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화는 자녀에 대한 부, 모 특히 부의 영향을 약화시켜 과거와는 달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한남제 외, 1994; 박경란, 이영숙, 전귀연, 2002).

형제자매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며 장남이나 장녀가 동생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보통 부모가

장남이나 장녀에게 권위를 주어 동생을 감독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장남이나 장녀가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부모가 해야 하는 가정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경계 혼란(boundary diffusion)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장남이나 장녀를 부모 역할을 하는 아이(parent child)라고 해서도 안된다(Minuchin, 1974).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역할은 한국의 전통적인 구조적 가족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는 자녀수의 감소로 인하여 이러한 형제자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에서의 혼란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지역행정구역상 광역시에 해당하는 모든 도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13세~18세 사이의 청소년 자녀를 가진 356가족(총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청소년기로 한정된 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문자해독력이 있다하더라도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가족원마다 가족을 보는 관점과 평가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가족원 가운데 부모와 해당자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제작

본 연구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기본 구조는 Perosa 와 Perosa(1990)가 개발한 구조적 가족 상호작용 척도(Structural Family Interaction Scale-Revised: SFIS-R)를 참고로 하였다. 구조적 가족 상호작용 척도(SFIS-R)는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식 척도로서 총 83문항으로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즉 가족구성원의 분화수준과 지지 정도를 평가하는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068

변인	구분	부모		변인	구분	자녀		
		남	녀			남	녀	
연령	40세미만	15(4.2)	77(21.6)	연령	13~15세	105(80.60)	162(71.3)	
	40~50세미만	294(82.6)	269(75.6)		16세~18세	25(19.4)	64(28.2)	
	50세이상	47(13.2)	10(2.8)					
직업	무직, 주부	9(2.7)	207(60.2)	종교	기독교	30(23.3)	81(35.7)	
	농축산업	6(1.8)	3(0.9)		천주교	18(14.0)	21(9.3)	
	노무직	29(8.6)	23(6.7)		불교	39(30.2)	45(19.8)	
	판매서비스직	101(30.1)	70(20.3)		무교	42(32.6)	80(35.3)	
	사무직	98(29.2)	33(9.6)					
	전문/관리직	93(27.7)	8(2.3)					
학력	초졸 이하	9(2.5)	13(3.7)	출생 순위	만이	52(40.3)	95(41.9)	
	중졸	33(9.3)	55(15.4)		중간	4(3.1)	30(13.2)	
	고졸	158(44.4)	205(57.6)		막내	56(43.4)	85(37.4)	
	전문대졸이상	156(43.8)	83(23.3)		독자	17(13.2)	17(7.5)	
수입	50만원미만		14(2.0)	결혼 상태	아내초혼+ 남편초혼 아내초혼+ 남편재혼 아내재혼+ 남편재혼	318(99.7)	5(1.4)	
	50~100만원미만		60(8.5)					3(0.8)
	100~150만원미만		126(17.8)					
	150~200만원미만		148(21.0)					
	200~250만원미만		129(18.3)					
	250~300만원미만		81(11.5)					
	300~400만원미만		71(10.1)					
400만원이상		77(10.9)						

* 빈도(%)

‘밀착·분리’ 요인, 부부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삼각관계, 협력, 우회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과 지지를 제공해 주는 정도와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아버지-자녀 응집·소외’ 요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과 지지를 제공해 주는 정도와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요인, 부부갈등이 해결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요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도와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융통성·경직성’ 요인, 가족구성원이 갈등을 표현하거나 회피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가족갈등 회피·표현’ 요인, 가족 내에서 분화수준을 측정하는 ‘과보호·자율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하위요인들을 Minuchin이

론의 주요개념과 관련시켜보면, 밀착·분리는 가족 경계, 부부협력·세대간 협력은 가족 위계질서, 아버지-자녀 응집·소외,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그리고 과보호·자율성은 가족 하위체계, 융통성·경직성은 가족 적응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Osorio-Brana, 1996).

한국형 가족체계 진단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Perosa와 Perosa(1990)가 개발한 구조적 가족 상호작용 척도(SFIS-R)를 참고로 한 이유는 이 척도가 Minuchin의 이론에 입각하여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식 척도이기 때문이며, 1980년에 Perosa가 개발한 구조적 가족 상호작용 척도(Structural Family Interaction Scale)가 여러 번의 수정작업을 거쳐서 적절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척도로 밝혀졌기 때문이다(Perosa, L., & Perosa, S., 1987, 1990; Perosa, L., Hansen, J., & Perosa,

S., 1991; Perosa, L., 1996). 이들 하위요인 중 밀착·분리,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아버지-자녀 응집·소외,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융통성·경직성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Minuchin의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형제간의 갈등 회피·표현의 하위요인을 추가하여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예비 문항 수집을 위한 임시 구조로 사용하였다.

Perosa 와 Perosa(1990)의 8개 요인 중 2개의 요인 즉, '가족갈등 회피·표현'과 '과보호·자율성'을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예비문항을 위한 임시구조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한국 가족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Perosa 와 Perosa(1990)의 질문지를 가지고 행한 요인분석 과정에서 두 요인의 문항들이 모두 흩어져서 다른 요인으로 묶였다가 결국은 모두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하위영역에 대한 모델로서 가족과정과 가족구조를 측정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족 환경모델(Family Environment Scale, 1974), Beavers 체계모델(Self Report Family Inventory, 1983), 순환모델(Circumflex Model, 1983), 구조적 가족 상호작용 척도(Structural Family Interaction Scale, 1980, 1990)에서 Minuchin의 가족구조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문항을 채택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Minuchin의 이론을 분석하여 각 하위척도의 기능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총 150문항이 채택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펜티엄 PC환경에서 통계 패키지인 윈도우용 SPSSWIN Version 7.5 Program과 LISREL 8.30 Program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둘째, 가족체계 진단 척도 예비문항의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요인분석의 모델은 주성분 분석을, 회전방식

은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하위 척도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체계 진단 척도 제작을 위한 예비 조사

총 150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Minuchin 이론에 정통한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 2인, 가족치료 전문가 1인, 대학에서 가족치료 강의 경험이 있으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4인에게 Minuchin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뢰하였다. 각 문항이 가족구조의 각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데에 "아주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3점, 그냥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2점,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면 1점을 부여하게 하였다. 여기서 평균 2.00이하를 받은 문항은 삭제하여 총 93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문항 양호도 검증에 앞서 각 하위영역의 문항과 전체문항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각 변수의 점수를 양수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수의 상관계수가 나온 17문항을 제외한 76문항을 문항 양호도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16문항을 제외하였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 예비문항의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위해 문항양호도가 확보된 60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에서 요인부하량 ± 0.30 이상이 되 다른 요인들에서는 ± 0.30 미만인 44문항만을 선별하였다. 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들은 모두 7개로, 이들은 전체변량의 51%를 설명하였다. 요인 1에서는 15문항이, 요인 2에서는 9문항이, 요인 3에서는 4문항이, 요인 4에서는 3문항이, 요인 5에서는 4문항이, 요인 6에서는 6문항이, 요인 7에서는 3문항이 최종적으로 남았다. 요인 1은 '밀

착·분리', 요인 2는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 3은 '융통성·경직성' 요인, 4는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요인 5는 '형제간의 갈등 회피·표현', 요인 6은 '어머니-자녀 갈등 회피·표현', 요인 7은 '아버지-자녀 갈등 회피·표현'으로 명명하였다.

2. 가족체계 진단 척도 제작을 위한 본 조사

예비 조사 결과 총 44문항이 선정되었다.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7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요인이 3개 이상의 문항을 가져야만 척도의 하위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한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문항 수가 적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새로운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백지숙 외, 1998).

새로운 문항을 수정, 보완하는데 있어서, 측정도구의 내용구성에 응집(cohesion)-소외(strangement)의 하위척도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적절한 양육과 지지를 제공해주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

으로 응집(cohesion)-소외(strangement)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예비조사 결과 결정한 44 문항에 덧붙여 응집-소외에 적절한 문항으로 35문항이 추가되었으며,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7에 26문항을 추가하여 총 105문항이 작성되었다.

1) 문항 양호도

문항 양호도 검증에 앞서 각 하위영역의 문항과 전체문항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각 변수의 점수를 양수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수의 상관계수가 나온 15문항을 제외한 90문항을 문항 양호도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90문항으로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2번, 14번, 60번, 65번, 68번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5문항을 제외한 85문항을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가족체계 진단 척도 검사의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번호	상관계수	문항번호	상관계수	문항번호	상관계수	문항번호	상관계수	문항번호	상관계수
1	.538**	19	.226**	41	.597**	62	.512**	83	.389**
2	.249**	20	.472**	42	.552**	63	.567**	84	.374**
3	.395**	21	.630**	43	.415**	64	.511**	85	.175**
4	.254**	22	.158**	44	.492**	65	.038	86	.537**
5	.387**	23	.375**	46	.511**	66	.438**	87	.501**
6	.510**	24	.144**	47	.529**	67	.595**	89	.453**
7	.068*	25	.396**	48	.442**	68	.026	90	.450**
8	.389**	26	.168**	49	.421**	69	.511**	91	.421**
9	.096**	27	.136**	51	.464**	70	.217**	93	.430**
10	.407**	28	.302**	52	.380**	71	.532**	94	.467**
11	.444**	29	.091**	53	.572**	72	.554**	95	.526**
12	.010	30	.363**	54	.372**	73	.448**	96	.091**
13	.465**	31	.559**	55	.584**	74	.504**	97	.508**
14	.034	33	.237**	56	.479**	75	.073*	99	.104**
15	.474**	34	.385*	57	.528**	77	.316**	101	.252**
16	.549**	35	.454**	58	.530**	79	.256**	102	.440**
17	.230**	36	.552**	59	.484**	81	.401**	103	.412**
18	.470**	40	.438**	60	.032	82	.412**	104	.273**

2) 구성개념 타당도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위해 문항양호도가 확보된 85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SREL 8.30 program을 사용하여 밀착·분리,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융통성·경직성,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형제간의 갈등 회피·표현, 어머니-자녀 갈등회피·표현,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아버지-자녀 갈등 회피·표현, 아버지-자녀 응집·소외라는 실제 구조가 가상되어진 구조(요인 1, 2, 3, 4, 5, 6, 7, 8, 9)와 얼마 나 일치하는지와 요인내 각 문항들의 통계적 유의도를 조사하였다. 이때 사용된 기준은 Chi-Square 통계량(χ^2), 표준카이자승치(χ^2/df),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한 적합도 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근사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chi^2=5239.39(p=.00)$, $df=3449$ 로 5% 수준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Chi-Square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자료가 클 경우에는 Chi-Square 통계량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Chi-Square 통계량과 자유도간의 비율을 이용한 표준카이자승치가 더 선호되고 있다. 이 비율이 수용 가능한 권장기준은 그 값이 1.0~2.0일 때이다 (Joseph, F., et al 1995). 본 연구에서 표준카이자승치는 1.52가 되어 권장수준 내에 있다. 그러나 Chi-Square 통계량이나 표준카이자승치가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결정적인 지수는 아니며, 특히 Chi-Square 통계량이 클 때에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아야 한다(이순목, 1990).

가설적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를 종합하여

보면 GFI, AGFI, NNFI, NFI, RMR에서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따라서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 일치도를 낮추는 문항들을 제거해야 했는데, 그 문항의 제거시 전체 모형의 개선도(즉 Chi-Square 통계량의 감소)를 말하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와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기준으로 삼았다.

모형 개선을 위한 첫 번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30이하인 10문항, MI가 20이상인 6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의 문항수가 2개인 5요인, 6요인, 8요인은 한 요인으로서의 적절한 문항수인 3문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6문항도 제거의 대상이 되어 총 22문항이 제거되었다. 22문항을 제거한 후 모형이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낮은 일치도를 보이기에 이러한 과정을 모형이 적합한 일치도를 보일 때까지 되풀이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인분석 결과 MI가 15이상인 8문항이 제거되어 총 55문항이 남게 되었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에 대한 최종적인 적합도 지수와 요인분석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최종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를 보았을 때 $\chi^2= 2279.21(p=.00)$, $df=1415$ 로 5% 수준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표준자승치가 1.61로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GFI, AGFI, RMR, RMSEA가 0.80, 0.79, 0.05, 0.04로 적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족체계 진단 척도는 밀착·분리 요인(16문항),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6문항), 융통성·경직성 요인(5문항),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요인(8문항),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요인(10문항), 아버지-자녀 응집·소외요인(10문항)인 총 55문항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각 하위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체계가 밀착되어 있으며, 부부협력이 잘

<표 3>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df	χ^2/df	GFI	AGFI	RMR	RMSEA
적합도 통계치	2279.21	1415	1.61	.80	.79	.05	.04

〈표 4〉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요인구조

문 항	요인부하량
요인 1 : 밀착·분리	
1. 우리 가족은 친밀하다.	0.564
2.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각과 행동에 관심이 많다.	0.538
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0.462
4. 우리 가족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0.572
5. 우리 가족은 진심으로 서로를 돕고 격려한다.	0.666
6. 우리 가족은 일체감(가족이 하나라는 감정)이 부족하다.	0.665
7. 우리 가족은 서로 소외감을 느낀다.	0.629
8. 우리 가족은 함께 있어도 친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0.673
9. 우리 가족은 자신의 고민거리를 가족보다 다른 사람과 의논한다.	0.582
10. 우리 가족 모두는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한다.	0.534
11.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쓴다.	0.522
12. 우리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낸다.	0.502
13.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안다.	0.561
14. 우리 가족은 모두 소속감을 느낀다.	0.451
1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한다.	0.435
16. 우리 가족은 각자 매우 다른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	0.335
요인 2 :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17. 부모님은 나에게 올바른 행동규범을 보여준다.	0.388
18. 부모님은 내가 해야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0.378
19. 부모님이 다투실 때, 부모님은 내가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0.490
20. 부모님은 아이들을 비난함으로써 부부 싸움을 피한다.	0.352
21. 부모님 중 한 분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는 아이가 있다.	0.539
22. 아버지가 좋아하는 자녀와 어머니가 좋아하는 자녀가 따로 있다.	0.577
요인 3 : 융통성·경직성	
23. 우리 가족은 갑작스런 상황에 잘 대처한다.	0.636
24. 우리 가족은 융통성있게 일을 처리한다.	0.677
25. 우리 가정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를 허용한다.	0.460
26. 우리 가족은 새로운 상황이 생겨도 적응을 잘한다.	0.476
27. 우리 가정의 규칙은 상황에 맞게 조절된다.	0.444
요인 4 :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28. 부모님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0.508
29. 부모님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어느 한 쪽이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0.521
30. 부모님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의견 차이를 원만하게 해결한다.	0.597
31. 부모님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다투기도 하지만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0.559
32. 부모님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결국에는 서로에게 고함을 치게 된다.	0.472
33. 부모님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결국에는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	0.445
34. 부모님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결국에는 한 사람이 화를 내고 나가 버린다.	0.538
35. 부모님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서 의견차이를 해결한다.	0.695
요인 5 :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36. 어머니께서는 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0.453
37. 어머니께서는 내가 돈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준다.	0.540
38. 어머니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고 안내역할을 한다.	0.451
39. 어머니께서는 나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한다.	0.534
40.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애정과 지지를 보여 준다.	0.589

<표 4> 계속

문항	요인부하량
41. 어머니께서는 공부하는 방식 및 학습문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준다.	0.633
42. 어머니께서는 동성친구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준다.	0.556
43. 어머니께서는 취미생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준다.	0.385
44. 어머니께서는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0.523
45. 어머니께서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0.520
	0.652
요인 6 : 아버지-자녀 응집·소외	
46. 아버지께서는 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0.617
47. 아버지께서는 내가 돈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준다.	0.434
48. 아버지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고 안내역할을 한다.	0.606
49.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한다.	0.610
50.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애정과 지지를 보여준다.	0.691
51. 아버지께서는 공부하는 방식 및 학습문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준다.	0.629
52. 아버지께서는 이성교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준다.	0.334
53. 아버지께서는 동성친구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준다.	0.420
54. 아버지께서는 취미생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준다.	0.582
55. 아버지께서는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0.457

이루어지며 융통성이 있고 부부 갈등 해결이 잘 되며, 어머니-자녀, 아버지-자녀의 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척도의 신뢰도

가족체계 진단 척도 총 55문항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alpha=0.94$ 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밀착·분리'의 $\alpha=0.87$, '부부협력·세대간 협력'의 $\alpha=0.60$, '융통성·경직성'의 $\alpha=0.66$, '부부갈등 해결·미해결'의 $\alpha=0.76$, '어머니-자녀 응집·소외'의 $\alpha=0.80$, '아버지-자녀 응집·소외'의 $\alpha=0.79$ 로 나

타났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2 주일 후 41명을 선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r = 0.80$ 으로 나타났다.

4.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각 하위영역별 점수분포

한국가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6개 요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가능한 점수 범위, 실제 점수 범위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체계 척도의 6개 요인 모두의 실제 점수 범위가 가능한 점수 범위의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가족체계 진단 척도 각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가능한 범위	실제 범위
밀착·분리	47.958	5.830	16~64	19~63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18.973	2.373	6~24	9~24
융통성·경직성	14.422	1.695	5~20	5~20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22.588	3.166	8~32	9~32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30.304	3.514	10~40	10~40
아버지-자녀 응집·소외	28.752	3.795	10~40	10~40

5.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절단점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절단점은 T-점수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1.5SD에 해당하는 점수를 잡았다. 이에 근거하여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 청소년기 356가족(총 1068명)을 대상으로 가족체계 진단 척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연구에 임하였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Perosa와 Perasa(1990)의 구조적 가족 상호작용 척도(Structural Family Interaction Scale Revised)를 기본 구조로 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족사정 척도들과 문헌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예비문항을 수집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작성된 150개의 예비문항 중 연구자와 7명의 전문가가 모든 문항에 대해 3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게 한 후, 여기서 평균 2.0 이하를 받은 문항은 삭제하여 93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예비 조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본 조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밀착·분리', 요인 2는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

인 3은 '융통성·경직성', 요인 4는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요인 5는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요인 6은 '아버지-자녀 응집·소외'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에서는 예비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요인구조가 나타났다. 그 원인을 간단히 밝히면 다음과 같다. SFIS-R에는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아버지-자녀 응집·소외'의 요인에 각각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과 지지를 제공해주는 정도'와 '갈등해결을 평가'하는 문항이 함께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두 문항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비조사에서는 '아버지-자녀 갈등 회피·표현', '어머니-자녀 갈등 회피·표현'의 요인으로 수정하여 갈등해결을 평가하는 문항만을 첨가 시켰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아버지-자녀 갈등 회피·표현', '어머니-자녀 갈등 회피·표현'에 대한 요인은 적어도 한 요인이 3개 이상의 문항을 가져야만 척도의 하위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한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문항수가 적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백지숙, 1998).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자녀 응집·소외'와 '아버지-자녀 응집·소외'의 요인으로 수정하여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적절한 양육과 지지를 제공해주는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을 첨가 시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서의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Perosa와 Perasa(1990)의 구조적 가족 상호작용 척도(Structural Family Interaction Scale Revised: SFIS-

<표 6> 가족체계 척도의 각 하위영역별 집단 간 비교 및 빈도

구분	상		중		하	
	점수	빈도(%)	점수	빈도(%)	점수	빈도(%)
밀착·분리	63~57	117(6.7)	56~40	879(82.3)	39~19	72(11.0)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24~22	172(16.1)	21~16	865(81.0)	15~9	29(2.7)
융통성·경직성	20~17	78(7.3)	16~12	942(88.2)	11~5	48(4.5)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32~27	99(9.3)	26~18	910(85.2)	17~9	59(5.5)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40~36	95(8.9)	35~26	924(86.5)	25~10	47(4.4)
아버지-자녀 응집·소외	40~34	118(11.1)	33~24	897(84.1)	23~10	51(4.8)

R)와 비교해보면,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밀착·분리' 문항 중 4문항이,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문항 중 2문항이 '융통성·경직성' 문항 중 1문항이,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문항 중 2문항이,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문항 중 1문항이, '아버지-자녀 응집·소외' 문항 중 1문항이 SFIS-R의 문항과 동일하다.

이러한 11문항을 가족체계 진단 척도와 SFIS-R이 공유하고 있으며, 비슷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SFIS-R의 요인 중 '과보호·자율성', '가족갈등 회피·표현'에 관한 요인은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요인구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한국 가족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Perosa 와 Perosa(1990)의 질문지를 가지고 행한 요인분석 과정에서 두 요인의 문항들이 모두 흩어져서 다른 요인으로 묶였다가 결국은 모두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가 SFIS-R과는 문항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하위척도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두 척도 모두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의 구성개념을 재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결과 $r = .80$ 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증 결과에서 가족체계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높게 나타나 도구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7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Nunnally, 1978)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본다. 이는 예비조사에서 보고한 신뢰도 계수보다 증가된 수치로서 예비조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8이었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를 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보면 .87, .60, .66, .76, .80, .79로 나타났다. 특히 요인 2와 요인 3은 .60, .66으로 다른 요인의 속성보다 동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Widaman(1993)이 사회과학의 자료에서 신뢰도가 .60~.85가 적당하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요인 2와 요인 3의 신뢰도 계수는 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체계 진단 척

도는 주요한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동질적인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절단점은 T-점수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1.5SD에 해당하는 점수를 잡았다. Howieson과 Lezak(1994)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척도에서의 절단점의 결정을 1.5SD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절단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검사자는 이 규준표를 참고로 검사의 목적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가족체계 진단 척도는 총 55 문항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하위척도 중 2개의 척도는 가족 역동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밀착·분리는 가족 구성원의 분화수준과 지지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융통성·경직성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도와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4개의 척도는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부부협력·세대간 협력은 부부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행하는 방법인 삼각관계, 협력, 우회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갈등 해결·미해결은 부부갈등이 해결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자녀 응집·소외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과 지지를 제공해 주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자녀 응집 소외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과 지지를 제공해 주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결과를 요약하고 가족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체계 진단 척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실천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치료에서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밀착·분리와 융통성·경직성의

21문항을 사용하며,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4개 요인의 34문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가족치료에서 가족이 작성한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결과를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먼저 다룬 후 이것을 활용하여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연구대상자를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자녀 가족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각 하위 영역별 점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청소년 자녀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다양한 임상집단과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하여 가족체계 진단 척도를 적용한 결과를 일반 가족의 가족체계와 비교하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치료적 개입이 가족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두헌(1975). 현대의 가족. 서울: 을지문화사.
- 김미경(1987). 체계론적 가족치료이론의 비교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9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욱(1993).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김효남(1984). 한국가족치료에 있어서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적용가능성. 숭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영(1989). 구조적 가족치료 활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 이영숙, 전귀연(2002). 현대 가족학. 서울: 신정
- 박영숙(1987). Minuchin의 이론체계에서의 한국가정의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은경(1986). 가족치료의 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지숙, 도현심, 박성연(1998). 한국후기개체화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89-102.
- 변귀연(1988). 가족치료에 있어 구조적 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정서장애아동의 가족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정영(1990). S.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한국적 재조명.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1996).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엄예선(1990). 가족치료의 소개 및 한국문화에서의 가족치료의 적합성. 인문사회과학논총, 5, 177-208.
- 윤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87).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순임 외(1995). 현대상담·심리 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이순목(1990). 공변량 분석. 서울: 성원사.
- 이준문(1995). 한국 목회가족상담에 있어서 S. Minuchin의 이론 적용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수(1993). 한국 빈곤가족문제에 대한 가족치료접근의 적용에 관한 연구: 미뉴친(S.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경(1987).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구조에 관한 일반가족과의 비교연구: Minuchin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순직(1986). 정신분열증환자의 가족치료에 있어서 Minuchin의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재석(1975). 한국가족연구. 서울: 민중서림.
- 한남제 외(1994). 한국 가족관계의 문제. 서울: 차산 출판사.
- 한인영(1979). 가족치료에 있어서 Minuchin과 Bowen이론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cvar D., and Becvar R. (1988).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Boston : Allyn and Bacon, Inc.
- Broderick, C. & Smith, J. (1979).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In Burr, W. R., Nye, I & Reiss, I.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 New York: Free Press.
- Hampson, R. B., Hulgus, Y. F., & Beavers, W. R. (1991). Comparison of self-report measures of Beavers system model and Olson's Circumflex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3), 326-340.
- Howieson D., Lezak M. (1994). *The neuropsychological evaluation, in Synopsis of Neuropsychiatry : American Psychaitric Press.*
- Joseph, F. H., Rolph E. A., Ronald L. T., & William, C. B.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 New Jersey :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Minuchin, S., Baker, L., Rosman, B. L., Liberman, R., Milman, L., & Todd, T. C. (1975). A conceptual model of psychosomatic illness in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 1031-1038.
- Minuchin, S., Rosman, B. L.,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f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1: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Osorio-Brana, J. (1996). The kinetic family drawing as a measure of Minuchin's structural family concepts among hispanic american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Perosa, L. (1980). The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to measure Minuchin's structural family concepts and the application of his psychosomatic family model to learning disabled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Perosa, L. (1996). Relations between Minuchin's Structural Family Model and Kohut's Self-Psychology Construc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385-392.
- Perosa, L., & Perosa, S. (1987). Relationships among Minuchin's structural family model, identity achievement, and coping styl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40*(4), 479-489.
- Perosa, L., & Perosa, S. (1990).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for family self-report measur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0*, 855-868.
- Perosa, L., & Perosa, S. (1990). The revision and validation of the Structural Family Interaction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rosa, L., Hansen, J., & Perosa, S. (1991). Development of the Structural Family Interaction Scale, *Family Therapy, 8*, 77-90.
- Widaman, F.(1993). Common factor analysis versu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differential base in representing mode paramete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8*, 1-10.

(2003년 8월 20일 접수, 2004년 2월 6일 채택)